

멸망의 현장에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복음으로 여는 에베소서-

창세기 12:1-3, 에베소서 2:8-9

정윤돈 목사님

* **창12: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 **엡2:8-9**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있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고 불신앙하며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공휟과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내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러지는 모든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헌신과 모든 포럼과 교제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 영육간의 절대불가능한 부분들이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뛰어넘어서 나의 현장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천명과 소명과 사명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내 직장과 전문성과 특별히 우리의 후대를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어렵고 힘들고 고��스럽고 여러 가지 갈등이 되는 문제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 그 절대미션과 절대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언약의 레마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며 현장에 적용하고 말씀실천을 위하여 도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전도자로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요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가는 말씀

우리가 30년 동안 훈련받은 영적인 내용들을 '7.7.7기도문'으로 요약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 7망대, 7영정, 7이정표를 볼 때마다 '쓰리세븐(777)' 손뚱깍이가 생긴다. 777손뚱깍이를 쓸 때마다 "이 손뚱깍이로 계속 깎지 않으면 손뚱이 저저분해지듯,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매일 잘라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우리는 '7.7.7기도문(7망대, 7영정, 7이정표)'으로 내 안의 흑암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야 한다. 여러분 개인이 먼저 철저히 복음화되고, 그 바탕 위에 전문화, 세계화의 응답을 누리야 한다. 7망대, 7영정, 7이정표라는 내용이 성도들에게는 외우기 벅찰 만큼 방대하게 느껴질 수 있다. 7영정의 핵심은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복음으로 훈련받고 공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언약의 여정을 24시간 걸어가기만 여러분의 분야에서 전문화와 세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식당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머릿속으로 24시간 그 분야를 생각하고 발전시켜야 영적 서밋과 기능서밋이 될 수 있다. 앞서가는 기업은 이처럼 끊임없이 갱신하고 새롭게 배운다. 하물며 성도들이 "나는 이 정도면 됐어"라며 과거에 갇혀 공부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으며, 운동도 하지 않는다면 영육 간에 죽어갈 수밖에 없다. 전문성을 향한 24로 성공적인 삶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 7이정표는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마가다라방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안디옥을 거쳐 마케도냐와 로마까지 나아가는 세계화의 방향을 의미한다. 나 역시 세계복음화를 위해 토요일마다 핵심메시지를 세 번씩 듣는다. 한 번은 한국어로, 그다음은 영어로, 마지막으로 중국어나 일본어 통역으로 듣는다. 외국어로 들으면 단어 하나하나를 새롭게 배우는 맛이 있고, 궁극적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해 언어를 준비하는 과정이 된다. 인도가 인구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는 중국이다. 비누아부나 아프리카 오지 등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중국인 커뮤니티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의 인구만으로는 세계복음화에 한계가 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중국인들을 복음화시켜 그들을 제자로 세워야 진정한 세계복음화가 앞당겨진다. 세계복음화의 관점이면 세상을 바라보아야만 진정한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간에 끊임없이 싸우고 분쟁하며, 결국 서로 원자폭탄을 터뜨려 지구 전체가 몇 번이나 멸망할 비극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 파멸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선교의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1년 전, 어느 목사님

과 대화하며 "7영정은 훈련이고, 7이정표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이라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7망대의 핵심은 대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적이 있다. 망대를 세워 파수꾼이 지킨다는 개념은 알겠으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축복, 공중권 세 잡은 자 결박, 오력, 3뜰 등 일곱 가지 방대한 내용이 하나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했다. 그때 그 목사님이 "7망대의 핵심은 바로 네 현장의 흑암세력을 켜는 것임이다."라고 명쾌하게 대답하셨다. 참으로 맞는 말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장악하고 있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우주의 권세, 그리고 오력을 가지고 완벽하게 박살내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현장에 흑암이 끼여야만 진정한 복음화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으로 인생의 명확한 목표를 세웠다면, 그 다음은 전문성을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며 노력해야 한다.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품지 말라. 어제 핵심에도 나오지 않았는가. 부정적인 사람은 결국 3류 인생으로 전락한다.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 것도 도전하지 않기에 크게 빛을 지거나 부도가 나지는 않을지 몰라도 결국 노숙자처럼 무기력한 인생이 되고 만다. 반대로 긍정적이긴 한데 전문성과 성실성이 전혀 없는 사람은 크게 망하고 부도를 낸다. 성공하려면 한 분야에서 10년, 20년 성실하게 전문성을 쌓고, 성공한 6명 이상의 멘토에게 조언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철저히 배워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만큼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때, 그 안에서 세상적인 전문성을 맹신하면 안 된다. 고린도교회 역시 처음에는 가난하고 부족한 자들이 모였으나, 복음 안에서 거듭나고 사랑으로 헌신하며 전문성을 키워 결국 로마까지 정복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큼 성공한 전문가들에게 겸손히 배워야 한다.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새로운 분야를 시작할 때는 기초부터 새롭게 배울 줄 아는 마음으로 다 배워야 한다. 하물며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하면서 공부도 안 하고 성공한 사람의 조언도 듣지 않는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창12:1)"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정보가 전혀 없었다. 책을 읽고 공부해서 지시할 땅을 찾아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영적으로 붙잡으셨기에, 상황과 만남을 통해 그를 완벽하게 인도하셨다. 요셉의 생애도 그러하다. 요셉이 억울하게 갇힌 감옥은 당시 성직법들이 수용된 곳이었다.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애굽의 최고 정치인들을 섬기며 누가 권력에 아부하는지, 국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완벽한 인턴십을 받았다. 철저한 정직함으로 간수장에게 인정받았고, 30세의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세계를 호령하게 되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에스테 역시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그들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시기 위해 나라를 망하게 해서라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그 이방 땅에서 전문성을 갖춘 절대제자로 강하게 훈련시키셨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고��스럽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토록 험난한 곳에 보내셨는가?" 질문해 보라. 대답은 분명하다. 복음을 가진 여러분을 그 현장에서 철저히 전문화시키고 세계화시켜, 세계복음화의 도구이자 만민을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서에도 바로 그러한 멸망의 현장이었다. 에베소는 온갖 우상숭배와 타락이 극에 달해 복음을 철저히 거부하던 어둠의 도시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상도시에 세워진 에베소교회를 세계복음화와 선교의 위대한 랜드마크로 바꾸셨다. 아브라함과 에베소교회는 결국 근원적, 대표적, 시대적, 불가항력적, 기념비적인 축복의 위대한 모델이 되었다. 여러분도 반드시 이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만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야 한다. 그저 "하나님, 복 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여 막상 큰돈을 벌었지만, 그 재물이 도리어 저주가 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다. 어머니께서 늘 "근심이 없는 재물을 주옵소서"라고 지혜롭게 기도하셨다. 자녀들을 화목하게 만들려면 차라리 약간의 빚을 물려주는 것이 낫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유산문제로 부모, 자식이 싸우고 형제 간에 피 터지게 다투는 비극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은 물질에 대한 탐욕을 다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완전한 치유를 받기를 축원한다. 형제에 대한 시기, 질투, 미움을 버려라. 여러분은 이미 복음 안에서 최고의 주역인데 왜 하찮은 돈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다투는가. 내가 다 양보하고 다 내어주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신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라고 약속하셨다. 과거 아버님을 악의적으로 괴롭히는 자가 있었다. 육신적으로 분노가 많은 아버님이셨지만 이상하게도 그에게는 보복하지 않으셨다. "왜 가만히 계십니까?" 여쭙니, "그렇게 칭찬해주는 것이 결국 너희 자녀들에게 복이 된다. 하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실 것이요(롬12:21)"라고 믿음으로 대답하셨다. 세상을 살면서 선을 베풀고 남을 도와주면 오히려 뒤통수를 맞고 배신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사람에게 헛된 기대를 하지 말라.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3:10)"라고 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므로 누가 부를 배신하고 욕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원망할 자격이 없다. 오직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해 주며,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만이 우리의 영적 마땅한 도리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노예이자 종이다. 주인이 종에게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게 하고 돌아와서 또 식사 수발을 들게 해도 종은 당연히 순종할 뿐 불평할 자격이 없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일을 많이 시킨다고 "왜 나한테만 시키고 저 사람은 안 시키나"며 불평하는 것은 믿음이 아직 어리기 때문이다. 오히려 헌신할 기회를 주심에 자란다는 마음으로 기쁘게 충성하라. 그것이 진정한 영적 복이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로 승부해야 한다. 부르짖고 울부짖으며 깊이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환경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완벽한 평안과 절대적인 확신이 찾아온다. 그 평안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참된 믿음이다. 응답의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어느 순간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떠오른다. 사람의 위로가 아닌 그 위대한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산더미 같은 고통과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당장 돈이 생기거나 상황이 극적으로 변한 것은 없지만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절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기 때문이다. 나의 영적 상태가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면 주변 환경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고, 당연히 경제적 축복과 물질적 응답도 따라오게 마련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히11:1)"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집중하여 기도하라. 우리 참사랑교회 주보에는 많은 선교사님과 동기 목회자들의 이름이 기도 제목으로 올라가 있다. 100명의 선교사님에게 매달 100만 원씩 온전히 후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 명단을 주보에 올렸다. 현재 100명에게 만 원씩이라도 후원하고 있으며, 언제가는 그 기도가 100%성취될 것을 확신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라. 나의 실력, 환경, 학벌, 재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복음으로 온전히 거듭나면 하나님은 오직 유일성과 창조자의 응답으로 끊임없이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신다. 우리가 왜 그토록 치열하게 운동하고, 건강을 관리하며, 공부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니다. 단 하루를 살다 내일 당장 죽더라도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이다. 나는 세계 지도를 돌리며 기도한다. "하나님, 이 지구촌 70현장에 영육을 살리는 치유센터와 병원, 거대한 문화센터와 최고급 5성급 호텔 수준의 RUTC를 세우게 하옵소서" 해외를 나갈 때마다 그 웅장한 그림을 그린다. 이단인 물문교도 세계적인 메리어트호텔 체인을 소유하며 세력을 확장하는데, 복음가진 우리가 못 할 이유가 없다. 이번 대회에 모인 만 명 이상의 캠퍼트들 중에서 반드시 세계를 뒤흔들기 위한 영적 거목들이 일어날 줄 굳게 믿는다. 오직 복음으로 결론을 내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과 팀을 이루어 세상을 살려나기를 바란다.

1.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와 에베소교회의 특성

에베소교회는 아브라함 시대의 갈라디 우르처럼 극심한 우상숭배와 타락이 만연했던 멸망의 현상이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이다. 에베소는 현재 튀르키예 지역에 위치한 최대의 무역 항구도시였으며, 고대 세계최대의 건축물이자 우상신전이었던 '아르테미스(아테미)' 여신전이 있어 우상제작과 각종 우상관련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누리던 타락한 도시였다.

1) 이교도(이방인) 출신들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 에베소서는 갈라디아서처럼 유대주의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철저히 이방 우상을 섬기며 멸망 길을 걷던 이교도 출신 성도들을 향해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엠2:11) 에베소 지역은 창녀, 알코올중독자, 마약중독자, 도박꾼, 사기꾼, 인신매매범 등 온갖 악과 타락이 들끓는 끔찍한 흑암의 현상이었다. 나는 바티칸운동본부에서 전과 50명 이상의 심각한 마약중독자들을 자주 상담해 왔다. 마약을 하면 시력이 1.0이되어 눈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뇌와 육체가 처참하게 파괴된다. 한 번 도박과 마약에 손을 대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절대불가능한 흑암의 현장을 절대가능한 축복의 땅대로 뒤바꿀 수 있다.

2) 두란노서원 중심의 제자훈련과 신학교 역할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상숭배로 찌든 에베소에서 극심한 핍박을 받았다. 우상 신상을 만들어 돈을 벌던 자들이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울은 두란노서원에서 2-3년 동안 제자들을 따로 모아 매일 집중적으로 말씀을 강론했다. 이 두란노서원이 오늘 날로 치면 '신학교'다. 일반 성도들이 일주일에 겨우 한 시간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하여 작은 문제에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과 달리 목회자들은 3년 혹은 7년간 매일같이 성경을 파고들며 영적인 집중훈련을 받기에 위기 앞에서도 굳건한 것이다. 여러분도 말씀을 읽을 때 풀줄기보다 달다(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119:103)는 사실을 체험할 때까지 밀줄을 그어가며 영적 훈련에 깊이 집중해야 한다. 육신의 나이가 70세라도 신앙생활을 3년 밖에 안 했다면 영적 나이는 겨우 세 살짜리 어린 아이일 뿐이다. 겸허한 마음으로 배워나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훈련에 집중하고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길 바란다.

3) 신학적 주제의 총망라 에베소교회가 이처럼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의 역할을 감당했기에, 에베소서는 6장 밖에 안 되는 짧은 분량임에도 성경의 모든 핵심교리를 완벽하게 담고 있다. 1장부터 삼위일체론, 예성론, 그리스도론, 죄론, 구원론, 사탄론, 교회론, 선교론, 예배론, 그리고 실천신학, 기독교 윤리학까지 낱알이 기록되어 있다. 성경의 한 구절은 세상의 가장 뛰어난 지식책 100권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위대한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성경의 단 한 단어, 한 구절이 주는 은혜가 너무나 비싸고 값어치 일주일 내내 원어와 문법을 분석하며 오직 한 절만을 깊이 묵상했다고 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을 누리며 영원한 응답을 받고 있지 않는가.

4) 세계복음화를 위한 절대명대 에베소교회는 두란노서원을 중심으로 골로새교회 등 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모교와 역할을 감당했다. 또한 전 세계에 흩어진 꺾박받는 교회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상 유언을 받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90세가 넘도록 여생을 보낸 곳이 바로 이 에베소교회라는 사실이다.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인 폴리갑(Polycarp), 그리고 폴리갑의 제자인 이레네우스(Irenaeus)를 통해 전해진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우상과 죄악이 창궐하던 절망의 도시가 복음의 빛을 받아 237나라와 5천 종족에 복음을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절대명대로 거듭난 것이다. 우리 참사랑교회와 후대들도 반드시 이러한 축복의 역사를 이어갈 줄 굳게 믿는다.

2. 에베소서에 기록된 중요한 복음의 본문들

1) 창세 전의 선택과 예정(엡1:4-6)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위대한 진리를 선포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 창세 전 영원부터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다가오는 어떠한 위기와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지만(약2:23, 사41:8), 우리는 실제로 오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이다(엡5:31-32, 고후11:2, 제21:2).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유치한 열등감을 모두 버려라.

2) 구원의 완전한 원리(엡1: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라" 구원은 내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이며, 십자가에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원죄와 자범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량' (씻김을 치름)' 받은 놀라운 기적이다. 남의 죄를 들추거나 간섭할 필요가 없다. 내 안에 어두움이 있으면 도망다닌다. 내 안의 어두운 상처와 열등감을 감추려 들지 말고 복음의 빛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와 완전한 용서와 평안을 누리라. 조금 어렵고 힘든 것은 훈련과정이다. 그것도 복이다. 그것도 누리길 바란다.

3) 죽었던 우리를 살리심(엡2:1-7)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엡2:1)",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3:10)",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엡2:2)" 과거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세상의 타락한 풍조(술, 마약, 도박)를 맹목적으로 따르며,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끔찍한 조종을 받던 진노의 자녀였다. 결국 멸망의 서명으로 달려간다. 이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구제불능의 끔찍한 죄인인지를 뼈속 깊이 안다.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입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면 너무나 쉽게 눈물로 영접한다. 반대로 세상에서 적당히 착하게 살며 교만한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라며 복음을 배척한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마약중독자나 스스로의 죄를 다 여기는 교만한 자나 똑같이 멸망을 받을 죄인일 뿐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엡2:3)" 말씀대로 진노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이다. 심리학자 에릭슨과 아들러는 모든 정신신경증과 질병의 근원이 내면의 '열등감'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다. 사탄은 끊임없이 "너는 아무 것도 못 해, 내 인생은 망했어"라며 우리의 열등감을 교묘히 파고들며 자부심을 철저히 무너뜨린다. 이 사탄을 꺾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다스리는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길 축원한다.

4)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엡2:8-9)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내 노력이나 공로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이다.

5) 전도자의 올바른 삶(엡4-5장)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은 이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1) 4장 2-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2)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던 우리지만 우리의 영적 성장의 절대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완벽한 인격'이다.

(3)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드셨다. 하지만 밤방이고 낮두면 조절하지 못하고 더 나빠지게 된다. 심리학자들은 성격은 결정되어 있어서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5:17)" 복음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다.

(4) 4장 28-29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주게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로 섰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이나 속설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은혜로운 말만 하라. 내 안에 복음의 생수가 가득하다면 결코 저주의 쓴 물이 나올 수 없다(약3:11).

(5) 5장 16-18절: "세월을 아까워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배방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간관리의 실재는 곧 인생의 방향을 부른다.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6) 영적 전투와 전신갑주(엡6:10-17)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땅의 삶이 치열한 영적 전쟁임을 경고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엡6:12)" 사탄의 군대 귀신들은 현대의 첨단무기인 드론이나 미사일처럼 다양하고 교묘한 영적 무기로 성도들의 숨통을 조여 온다. 이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 우리는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신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시대에 맞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승리하여서 아브라함과 에베소교회에서 받은 축복을 모두 다 누리길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소중한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악하고 고통스러운 세상, 사탄이 끊임없이 역사하는 세상 속에서 절단코 속거나 쓰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십자가 복음으로 완전무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강력한 영적 전신갑주를 입은 진리의 군대가 되어 나 자신과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절대 파수꾼으로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으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